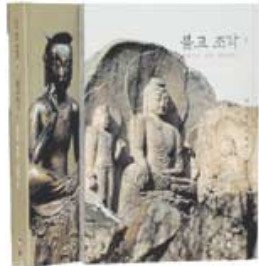


우리 불상의 美 제대로 알겠네



자신감 넘치는 모델링으로 생명력을 구현하고 있는 금동연화관사유상(국보 83호).



‘불교조각 I·II’

강우방 외 지음
도서출판 숲 / 각권 2만5천원

“불상은 부처, 곧 ‘깨달은 자’를 형상화한 것이다. ‘진리’라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을 조각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 불상이다. 그러므로 불상에 담겨진 조형언어를 올바르게 읽게 될 때, 우리는 부처의 본질을 닿을 수 있다.”

우리 미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불교조각, 그 중에서도 불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 조형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불교조각 I, II>가 나왔다. 이 책은 도서출판 숲과 방일영문화재단이 모두 12권으로 펴낸 예정인 ‘한국미의 재발견’ 시리즈의 3, 4권으로,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인 강우방 교수(이화여대)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인 곽동석·민병찬 씨가 필자로 참여했다.

고교생 눈높이에 맞춰 독창성·변천사 등 조명 제작 과정 상세설명 눈길

강 교수는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 실현된 미와 생명을 통해 오히려 종교적 체험에 접근하게 된다. 불상 조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형언어를 통한 신과 인간의 탐구이자 자아의 발견이다”고 말한다.

이 책은 크게 한국 불교 미술의 원류와 아시아에서의 위치 조명, 불상의 개념 해설, 제작과정을 소개한 부분(1권 1장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조각 특징과 그 흐름을 조명한 부분(1권 2장~II권 3, 4장)으로 나뉜다.

1장은 한국 불교 미술의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향한, 출발점으로서의 장이다. 강 교수가 쓴 개성 성격의 ‘한국 불교 미술의 참모습’은, 일반적으로 여래를 중앙에 두고 좌우로 보살상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중앙에 불지보주보살을 두고 양 옆에 더 크고 우람한 여래상을 배치한 태안 마애삼존불(보물 432호)과 중국의 영향을 받되 그것을 발전시켜 더 크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사유상(思惟像)을 탄생시킨 전개과정 등을 예로 들며 한국 불교 미술 나름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불상(아미타 삼존불·아래)과 달리 중앙에 불지보주보살을 두고 양옆에 더 큰 여래상을 배치한 태안 마애삼존불(위).

또한 석굴암 본존불을 한마추신인의 석가여래상으로 보는 것이나 흔히 도깨비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하여 귀면와(鬼面瓦)라 불리는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용(龍)의 얼굴을 보고 새긴 용면와라는 주장 등 강 교수의 미술사적 지론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상의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민 ‘불상의 재료’ 부분이다. 기존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금동불과 석불, 철불, 건칠불 등 불상의 제작 과정을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II권 2장부터는 국 불교 조각의 특징과 그 흐름을 짚어본다. 우리나라 초기 불상인 선정인(禪定印) 여래좌상을 비롯해 가장 한국적인 보살상인 반가사유상, 그리고 한국적 불교 조각의 매우 중요한 특수성이자 우리 불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화강암 석불 등 8가지 주제에 따른 삼국시대 불상 30점을 소개하고 있다. II권 3장과 4장에서는 불교 조각의 황금기인 통일신라시대 불상 43점과 사회·종교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상 변천상을 이 시대 불상 24점의 모습에서 찾아본다.

고등학교생의 눈높이에 맞춰 쓴 이 책은 다양한 도판과 함께 책 사이사이에 배치된 ‘알아두기’ 코너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부록에서는 불상 및 보살상의 세부 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한·중·일 주요 작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중·일 불상연표’도 실었다.

여수령 기자 snocopy@buddhapia.com



‘디자인을 공부...’

시마다야시 지음
디자인하우스 / 1만원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책 제목을 열핏 보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책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편견이다.

디자이너라는 행위는 좁은 의미에서 전문 디자이너가 시각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넓게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디자이너인 동시에 디자인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디자이너란 단어는 잘 알다시피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어원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영어의 ‘design’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 책은 전문 디자이너에게는 깊이 있는 디자인 철학과 역사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지만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예제집이다. 이 책을 읽으면 적어도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단순히 컴퓨터만 만드는 개념이 아닌 역사·문화·사회 등의 유기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을 지닌 활동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라는 책을 쓴 필립 B. 맥스는 ‘디자인은 즉시성과 무상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좋은 디자인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보여주는 감동과 같은, 오랜 시간이

디자인 중심 철학은 ‘사람’

장르별 전문가 15인이 쓴 에세이

흘러도 여전히 좋은 디자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지금의 유행에도 떨어지지 않는 요소가 디자인 결과물에 담겨 있어야 비로소 훌륭한 디자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과 역사, 디자인과 사회, 디자인과 시대 등의 유기적인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결과물일 때 디자인적 결과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그의 주장이 이 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책은 디자인 중에서도 건축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 이론 등 각기 다른 디자인 장르의 전문가 15명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또한 일본인 디자이너가 자신이 연구한 바와 필드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며 느낀 점, 그리고 생활 속의 디자인처럼 일반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담겨져 있다. 각 글의 마지막에는 글을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더 넓은 독서를 위하여’라는 코너를 통해 글 내용과 관련된 책이나 지은이의 생각을 부가적으로 언급하여 더 심층적인 연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어 디자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된다.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리에 나가 생활을 배우는’ 시점(視點)을 견지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귀결되는 활동’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그래픽, 인테리어, 인디스트리얼 디자인 등의 구분을 넘어서 다채롭고 폭넓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 편의 수필처럼 써내려간 책이다.

책 속의 밑줄긋기

▷ “불교미술 가운데서도 불상만큼 시대나 국가, 시기, 지역, 민족의 다양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장르도 세계 미술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불상이 죽어 있는 우상이 아니라 각 시기 각 지역 사람들의 미의식과 그들이 절실하게 회귀하는 이상적 인간상에의 동경과 경배의

염(念)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I 권 18p. ‘한국 불교 미술의 참모습’)

▷ “고졸(古拙)한 미소란 얼굴 전체가 아니라 양 입가만을 살짝 눌러서 표현한 고대 조각의 미소를 말한다. 입으로 짓는 미소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 불상의 얼굴 표정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정형이 없고 얼굴이 저마다 다르다. 한마디로 너무나 인간적이고 친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정은 순진무구한 미소와 뜬 듯 감은 듯 가려진 눈매로부터

나온다.” (I 권 135p. ‘우리 불상의 한국적인 특징’)

▷ “7세기 말부터 새로운 지평을 열기 시작한 불교 조각은 8세기 중반에 이르러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불상을 만들어 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자 불교 예술품인 석굴암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된 뛰어난 조형성을 갖춘 금동불과 석불들은 한국의 불교 조각이 8세기 중반에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말없이 대변해주고 있다.” (II 권 61p. ‘최고봉에 도달하다’)

번뇌업고통

번뇌·업·고통이라는 주제는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승석 지음 / 신국판 / 318면 / 8,500원

끊임없이 발동하는 속마음

번뇌

생사 윤회의 질긴 끈

업

극복해야 할 삶의 진상

고통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시각은 어느 종교에서나 일지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이유와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방안을 철저히 인간 자체에서 찾고 있는 종교가 불교이다. 그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많이 운운 하면서도 그 실상을 지나치기 쉬운 몇 가지 주제를 취급한다.

이제! 깊은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법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속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술잎, 난초국화, 문예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저장,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향 물질의 힘이 담긴 향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두껍게 보충시켜주세요.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영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매가 참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치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행정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김도현